

民族理想과 教育史觀

—의술의 教育史觀을 中心으로—

韓 基 彥

I. 教育史觀의 뜻

1. 教育救國의 念願

本稿에서는 의술 崔鉉培(1894—1970)의 思想을 ‘史觀’이라는 觀點에서 考究해 볼때, 의술의 史觀은 곧 ‘教育史觀’이었음을 論證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런데 「의술의 教育史觀」이라는 제목을 처음으로 대할 때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의술의 史觀이란 무엇이며 더우기 ‘의술의 教育史觀’이란 무엇이나라는 疑問일줄로 안다. 그 까닭은 일반적으로 의술 崔鉉培에 대해서는 오직 ‘한글 學者’로서만 印象지어지고 있고 좀더 아는 분에 있어서조차 의술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教育學의 先驅者라고는 알고 있어도, ‘의술의 教育史觀’이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언뜻 그것이 어떠한 內容의 것인지 좀처럼 윤곽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면 그의 一生은 教育救國의 念願 하나로써 꿰뚫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나라사랑’이라는 말로 結晶 昇華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修學時代에 있어서의 思索과 體驗을 통하여 이미 하나의 確信이 된 것이 ‘教育의 힘’은 위대하다는 確信이었고 教育을 통하여 民族理想의 傳達과 實現이 있게 해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의 歷史認識은 ‘教育’과의 關係의 것이었으니 의술의 史觀은 ‘教育史觀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

2. 教育史觀의 意味

우리는 여기서 비교적 先疏하게 들리는 ‘教育史觀이라’는 말 자체에 대하여 좀더 分明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겠다.

‘史觀’이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역사관’을 주린 말인데, 역사를 보는 觀點을 말한다. 본래 역사는 역사가의 사고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역사는 본질적으로 選擇的인 記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史觀’이란 특정 역사가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立場’, ‘選擇基準’, ‘解釋原理’, ‘價値觀’등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¹⁾

(1) 神山四郎, 歷史의 探求,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68.

William H. Dray, *Philosophy of Hist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4.

따라서 옛부터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정치'현상에 초점을 두어 시대구분만 하더라도 왕조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다루는 사관으로서 가장 오랜동안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정치사관을 비롯하여 사회나 경제 현상에 초점을 둔 '사회 경제사관', 또는 문화현상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文化史觀' 그리고 인간 지성에 초점을 둔 '知性史觀' 등 수 많은 '史觀'이 제시되어 왔다.⁽²⁾

그러나 아직까지는 '教育史觀'이라고 하여 하나의 독특한 史觀으로서 역사학계에 제시된 것은 불행히도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 같다.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史觀이 대개 그랬듯이, 어떤 하나의 觀點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에 의하여 역사서술을 해 갈때, 그것은 하나의 史觀을 제시한 것이 되었던 것이니, 그러한 의미에서는 '教育史觀'이라고 하여 성질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토인비가 「歷史의 研究」에서 다룬 것은 어디까지나 '文化'였었는데, '교육'에 관한 것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한 미국 교육사학자 마이어즈(Edward D. Myers)는 마침내 토인비(Arnold J. Toynbee)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書信交換과 討議를 거쳐 마침내 하나의 共著를 출간함에 이르렀다. 그 책이름은 「歷史의 展望에서 본 教育」(*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History*)⁽³⁾이라고 하여, 결국 教育史觀에 입각한 토인비 스타일의 저서가 나온 셈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종래의 역사학자가 토인비와 같은 위대한 史學家에 있어서조차 看過하기 쉬웠던 '교육'에 대하여 關心을 쏟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일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教育史觀'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이 하나의 '史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史觀'으로서 인정되는데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도리어 '教育史觀'은 여태까지의 지배적인 正統史觀에 대하여 하나의 새로운 正統史觀의 出現까지도 바라다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史觀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서인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史觀으로서 거론된 것을 정리해 볼 때, 거기에는 하나의 共通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를테면, '政治史觀'의 경우는 인간 능력의 특성의 하나인 '政治'를 또 '사회 경제사관'에서는, 사회나 경제의 측면을 문화사관이나 知性史觀에 이르러서도 역시 거기서 다룬 것은 인간능력의 소산물인 '文化'나 또는 인간능력의 특성인 '知性'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태까지의 史觀이란 결국 人間能力의 特性의 어느 일부 또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文化와의 관계에서 歷史敘述을 한 것이지, 거기에는 歷史에 의하여 형성되며 歷史生成者로서의 '人間'을 중심에 놓고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人間形成史的인 歷史觀'인 '教育史觀'이 새로운 正統史觀

(2) Fritz Stern (ed.), *The Varieties of History*, New York, Meridian Books, 1957.

(3) Edward D. Myers & (with a concluding chapter by) Arnold J. Toynbee,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Hist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60.

으로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史觀으로서의 ‘教育史觀’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심과제는 인간의 自由의 확대요, 그것은 教育機會擴大의 역사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人間尊重思想과 教育의 問題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람은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存在한다.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 전체가 價値로운 것으로 확신하게 된 하나의 國民思想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그들 각국의 歷史에서 부터 연유하는 것이니 歷史의 核心은 마침내 國民思想 形成의 課題와 不可分離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叙述하는 事例에서는 분명히 ‘教育史觀’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歷史에 대한 가장 간절한 관심은 마침내 人間形成의 문제 즉 ‘教育’의 문제로 收斂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教育史觀을 志向한 것으로 말하고 싶다.

블르크(Marc Bloch)는 제 2차세계대전 당시 抵抗歷史家로서 마침내 나치스 독일의 게슈타포에 의하여 銳殺된 사람이다. 그는 『教育의 一般의 改革案』에서 그의 祖國 프랑스가 敗北한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知성과 性格의 敗北이었다”고 말하였다. 또 『마르크, 블르크의 遺言』의 一節에는, “나는 平生토록, 表現과 思想의 誠實을 위해서 最善을 다하였다. 나는 善良한 프랑스인으로서 살았고, 선량한 프랑스인으로 죽는다”는 말이 보인다. 그는 學問과 實踐的 信念과 ‘歷史意識’으로써 죽음과 바꾼 市民的殉教者인 것이다. 더우기 그가 獅中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침내 끝을 맺지 못한채 전체 構想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遺稿인 『歷史를 위한 辯明——歷史家の 일감』(Appologie pour L'histoire ou Metier D'historien)⁽⁴⁾은 그의 뛰어난 歷史理論書로서 평가되거니와, 본래 계획하기는, 結論으로서 그는 「市民的 身分과 教育에 있어서의 歷史의 役割」에 관한 研究를 써보려고 했던 것이며 또 歷史教育에 관한 것을 附錄으로서 添加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블르크의 경우와 같이 歷史家가 역사적 현실을 통하여 그의 生涯를 걸고 마침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實踐에 옮겼을 때만큼 우리에게 큰 感動을 주는 일은 없으리라 그리고 그 歷史理論의 精神은 역사 教育」에 結晶・昇華되어가는 한 개인의 精神史的過程을 우리는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810년대를 전후하여 금일에 이르는 약 170년간의 獨逸史는 우리에게 두 가지 歷史的教訓을 주는 것 같다. 하나는 1806년 나폴레옹一世의 侵功에 따른 독일인의 自信喪失과 영광스러운 獨逸文化傳統의 探究 및 體系化를 위한 끈질긴 學的努力이요, 또 하나는 이러한 노력의 結晶을 기반으로 하여 이것을 정치적으로 최대 이용을 하였고, 마침내 大瓦解를 가져 온 나치스政權의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그 노력의 결과가 獨逸文化發展의 活力素가 되었고 1871년의 獨逸封建國家의 統一, 즉 獨逸帝國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니와, 후자의 경우는 독일 전통의 政治的歪曲이 마침내 독일의 敗北을

(4) Marc Bloch, Appologie pour L'histoire ou Metier D'historien.

가져왔다는 것의 實證인데, 歷史教育이 어떻게 행하여져야 되겠는가에 대한 示唆點이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 릿터(Gerhard Ritter)는 그의 저서 『教育力으로서의 歷史』(Geschichte als Bildungsmacht, 1947)라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를 느끼게 하는 저서명으로도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1945년 독일이 敗戰한 뒤 教育制度를 再建함에 있어 특히 「歷史教育」이 가장 큰 難點을 지니고 있다는 問題의 狀況 가운데서 저술된 것이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의 根底에 있는 것의 全體가 우리들의 歷史像 자체가 단번에 動搖해 버렸기 때문”(5)이라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기에, 독일인은 너무도 獨逸史의 가장 아름다운 諸理想이라든가 尊敬할만한 諸體統에 대해서, 또 국민이 자기 자신과 그 未來에 대해서 품는 信仰에 관해서 얽치없이 濫用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이리하여 그는 도대체 歷史的·政治的인 諸信念 가운데서 어떤 것이, 獨逸史의 傳承된 諸價値의 어떤 것이 여전히 不動한 것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하는 힘으로서의 歷史의 問題性’ 즉 ‘歷史의 教育的價値’ 문제가 결코 독일의 특수적 상황성에서만 아니라 一般的인 性格에서 생각해 볼만하다는 것을 示唆한다.

그런데 그가 무엇보다도 크게 문제시 한 것은 나치즘에 의하여 歪曲된 獨逸史學 및 歷史教育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政治的인 教育力으로서의 獨逸史學이 오늘날 [1945년 당시 直面하고 있는 最大困難]은, 즉, “일반적인 意見喪失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軀軀를 찾아내는 것, 여러가지 傳統이 모조리 덧없이 瓦解해 버린 뒤에, 자기 스스로 한개의 새로운 傳統 한개의 새로운 共通된 信念을 創造하는 것, 온갖 政治的=歷史的概念的 걸잡을 수 없는 混亂의 渦中에서 國民的 自己意識을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확고한 據點을 構築하는 일 에 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歷史教育이 다음과 같은 諸點에 힘써야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치스 政權 治下에 극한적 상황에 비추어 보아 反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歷史的 教育的 價値를 말함에 있어, “歷史的 教養이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도 순수한 職業的 準備教育을 위해서 아무 실제적인 通用價値를 갖지 않는다는 것 (혹은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아주 적게라는 것)은 그의 말하는 것 처럼 잔소리일 것”이라고 하면서 歷史的 教育的 價値에 대한 몇 가지 疑問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는 ‘歷史가 不可缺하다는 것’ 즉, 그 ‘積極的 效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歷史的思想 歷史的 教養은 모든 높은 文化의 不可缺한 生命의 要素——盲目的인 摸索本能의 段階를 克服하려고 애쓰는 생생 발랄한 精神의 비길 바 없는 그러나 涸渴치 않는 샘——이다. 歷史는 다른 무엇보다도 社會的 現實의 教師이다. 歷史만이 우리에게 우리들이 자라난 土地를 우리가 生存하며 활동하는 장소의 構造를 가르쳐 알려준다. 우리는 암만하여도 歷史없이 넘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5) Gerhart Ritter, *Geschichte als Bildungsmacht* (島田雄次郎譯) 1947. S. 5.

우리는 우리들을 둘러싼 세계를 알아야만 되며, 그 세계는 결코 언제나 오늘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社會的現實에 있어서의 어떠한 행동도, 最少限의 歷史的知識 없이는 成功할 수는 없는 것이다.⁽⁶⁾

이렇게 말한 그는 “歷史的教養 없이는, 진정한 洞察은 存在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精神的 決定의 領域에 있어서도 政治的 行動의 그것에 있어서도 그렇다”⁽⁷⁾고 했다. 또 “歷史的 感覺을 향한 教育이란, 性急한 判斷 대신에 理解를 향해서 教育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理解란 명료케 하는 것으로서 是認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歷史家는 완전히 理解하지 않고는 判斷하지 않으며, 온갖 狀況에 대한 엄밀하며 사실적인 吟味 없이는 칭찬도 하지 않으며, 비난도 하지 않으며, 사랑하거나 憎惡하지도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分別’이라고 하였다. 실로 “진정한 歷史的 教養은 盲目이 아니라 明察인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歷史的 理解가 진체가 된 역사적 判斷, 역사적 洞察의 가능성을 論及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이스라엘인은 「토오라」를 통해서 國民思想의 傳承 및 形成에 힘써온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또한 이를테면, 곰머저(Henry Steele Commager)에 의한 「美國精神」(*The American Mind*)이라는 책이 널리 읽혀지듯이, 精神史的이며 思想的 側面에서 美國人 形成에 教育的 努力을 기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해서, 「외술의 教育史觀」이라는 本題目은 그가 「나라사랑의 길」이라는 저서로써 集大成했듯이 적어도 역사를 생각함에 있어 ‘教育’을 中心的 課題로 삼았고 民族的 理想의 教育史의 理解에 注力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史觀은 ‘教育史觀’이라는 特性을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

II. 「教育의 힘」에 대한 믿음

1. 외술의 學問世界

외술의 生涯는 그의 修學過程을 보거나 大學을 졸업한 이후 社會적 활동을 보거나 그의 中心課題는 ‘나라사랑’의 一念이요 그것은 ‘教育의 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니, 얼마나 그가 ‘教育의 힘’에 대하여 절대적 信賴感을 지니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외술의 修學過程에 대해서는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이라는 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처음에 스승인 周時經을 통해서 「한글」을 배웠고, 月本에 가서 히로시마(廣島) 高等 師範學校를 다닐 때는 유학조건 관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으나 留學生活을 하고 보겠다는 생각에서 「日語漢文科」에 적을 둘 수 밖에 없었다. ‘教育學’은 그에게 있어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의 성격상 副專攻인 셈이었다. 그후 다시금 뜻을 세워 日本의 京都帝國大學

(6) Ibid., S. 21.

(7) Ibid., S. 23.

및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게 될 때에는 처음에 ‘社會學’을 공부하다가 마침내 ‘教育學’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 까닭은 사회학이란 학문이 그 연구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연구의 길이 너무나 가닥스럽기(多岐的) 때문에 새로 전공하고자 하는 나에게 대하여서는 시간과 노력의 요청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민족 개조 사회 개량의 근본책이 교육에 있음이 더 절실히 느껴졌으며, 또 우리말 연구의 부전공의 목적을 위하여 언어학 공부가 나에게 많은 시간의 할애를 요청함이 있고, 더구나 교육학은 히로시마 사년간에 많은 전공이 있는 편의성도 있었기 때문이었다.⁽⁸⁾

라고 하여 마침내 나라 건지는 길(救國하는 길)을 위해서 ‘教育學’을 전공하게까지 된 마음의 遍力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던 외솔이 훗날 延禧專門學校에서 ‘교육학’ 보다는 한국어 가르치는 한글學자가 된 때에는 당시의 興件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서, 그가 追求한 궁극목적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 궁극목적이란 ‘나라사랑’이었고 따라서 교육학에서 한글 연구에로 옮긴 것은 兩者擇一이 요청되는 역사적 상황가운데 우선 순위로 보아 민족의 얼이 담긴 그릇인 우리말 ‘한글’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탓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표면상 그의 전공이 여러번 바뀐 것 같아도 深層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民族에게 生氣를 주며 民族을 更生시키고 마침내 우리 민족을 부흥시킬 수 있는지를 念願했던 것이니 ‘나라사랑’이라는 면에서 初志一貫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외솔이 京都帝大 재학중 기약한 바는 ‘조선의 페스탈로찌’가 되겠다는 것이었고 卒業論文으로 택한 것이 「페스탈로찌의 교육사상」이었다.⁽⁹⁾ 그리고 다시금 그의 이와같은 抱負를 글로 표현한 것이 그가 귀국 직후 東亞日報에 연재함으로써 크게 환영을 받은 「朝鮮民族 更生の 道」였었다.⁽¹⁰⁾ 이들에 관계된 상세한 설명은 본고의 성격상 일체 생략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기로 한다.⁽¹¹⁾

2. 외솔의 教育活動

외솔은 生涯를 통하여 몇번 職場을 옮긴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그는 오직하나 「教育의 힘」은 위대하다는 믿음에서 ‘나라사랑’이라는 ‘教育救國의 念願’ 實現을 위하여 가장 효과

(8) 최현배,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 「나라사랑」 제10집, 외솔회, 1973. p.169.

(9) 최현배, 베스탈로찌의 교육사상, 「나라건지는 교육」, 서울, 正音社, 1975, pp. 165-221.

(10) 최현배, 朝鮮民族更生の 道 (1930年版 翻刻本), 서울, 정음사, 1971.

(11) 關係論文으로는 다음의 것을 參照할 것.

홍이섭 <조선 민족갱생의 도> 그 정신사적 추구, 「나라사랑」 제1집, 외솔회, 1971, pp. 38-70.
김두헌 <조선 민족갱생의 도>에서 본 민족정신, 「나라사랑」 제10집, 1973, pp.14-27 / 최제희 <조선 민족갱생의 도>의 철학, pp. 28-41. / 김태길, 외솔 선생의 나라사랑의 윤리, pp.42-57. / 김정환, 외솔 선생의 민족적 교육학, pp. 58-74. / 김석득 <조선민족 갱생의 도>와 한글 연구, pp. 75-92

홍용선, 외솔의 교육사상, 「나라사랑」 제14집, 1974. pp. 161-183.

적이라고 여겨지는 까닭에 그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 일한 사라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저한 事例가 그가 두번이나 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였다고는 하지만 문교부 '編修局長'으로서 근무했다는 사실이다. 이 자리가 외술의 學識이나 人物의 크기로 보아 반드시 世俗的인 의미에 있어서의 감투라 할 수 없고 榮達의 차리가 아님은 누구나 쉽사리 추측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렇건만 그가 두번이나 기꺼이 이에 응하고, 分秒조차도 私事에 쓰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썼다고 하니 그의 나라사랑의 一念이 얼마나 굳고 철저하였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한글 학회」이사장으로서 오랜동안 한글에 대한 理論的研究와 아울러 한글 專用 및 普及를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도 일찌기 외술이 그의 '教育理想 實現의 곳'으로 정한 延禧동산에서의 教授生活은 두 차례에 걸친 문교부 編修局長時節을 제외하고는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다.⁽¹²⁾

그가 가장 괴로웠던 日帝治下の 延禧生活, 특히 그가 전공이었던 '教育學'을 가르치는 일이 副次的이 될 수 없었던 당시 狀況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다.

연희는 나의 교육 이상의 실현의 곳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러나 왜 정의 동화 정책, 식민지 문
 육 방침에 굴레 씌워진 당시의 우리의 교육은 도저히 나의 교육 이상의 실현의 여지가 없었음을 간
 과하게 나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연구심은 교육학의 원리 방법 등에 쏠릴 수가 없었다. 만세
 불멸의 교육 원리도 왜정의 횡포한 갈 앞에는 아무 실행의 여지가 없었 때문이었다. 나는 철학(철
 학사 철학 개론 논리학 윤리학)을 가르치고 교육학·심리학을 가르치었다. 그러나 나의 연구의 노력
 은 나의 학교 교육에서는 부전공(副專攻)의 지위에 있던 우리말 우리글에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조
 선말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나의 주장된 학구적 사업이었다.⁽¹³⁾

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술이 본디 '교육학'에 뜻이 있으면서도 당시의 강박한 정
 치적 여건하에서는 차라리 민족의 얼을 전해주는 우리말 우리글을 가르치는 일에 全力投球
 하는 길을 擇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나라사랑'의 참뜻에서 보거나, '教
 育의 힘'을 믿는 그의 信念에 비추어 보거나 옳은 일이었던 것이다.

외술이 우리말, 우리글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민족의 理想과 얼에 生氣를 북돋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마치 그 옛날 루터(Martin Luther)가 참된 信仰의 源泉은 「聖經」에 있
 고, 그것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독일 국민이 母國語인 독일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여 독일
 어 교육인 이른바 言語教育을 무엇보다도 강조한 趣意와도 比肩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외술의 生涯를 통한 教育活動은 당시의 상황의 긴박함에 비추어 보아 한글學者
 로서의 길을 택하게 하였거니와 그것은 教育學의 實際的應用이었다. 따라서 그는 言語教育
 의 중요성과 아울러 道德教育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아 「朝鮮民族更生의 道」를 저술한 아래

(12) 「외술 최 현배박사 해적이」(나라사랑, 제 1집, p. 25)에 의하면 68세때인 1961. 5. 3.에 그는 延世大學校 名譽教授가 되었다.

(13) 최현배,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 「나라사랑」 제10집, p. 170.

로 여러 권의 도덕교육 관계서를 저술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은 모두 「나라 사랑의 길」로 集成을 보게 하였다. 외솔의 修學過程을 보거나 그의 生涯事業을 보거나 「教育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일관한 사람이라고 평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Ⅲ. 民族的理想의 教育史的 理解

1. 나라사랑의 길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외솔의 教育史觀」의 實體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외솔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 옛부터 지니고 살아왔으며 또한 그것이 있었기에 아무리 歷史的試鍊이 거센 逆境의 시대에 있어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끈질기게 참고 이겨내어 마침내 오늘의 民族光復과 獨立國家로서의 榮光을 지니게 된 「民族的理想」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根源이요 思想體 提示였다고 본다.

그러면 외솔이 생각한 우리의 民族的理想이란 무엇인가? 외솔은 그것을 두가지 말로 표시하였다.

첫째는 社會觀이라고도 할것인데 ‘밝은 누리의 실현’(光明理世)이라는 말이다.

외솔은 이 ‘밝은 누리의 실현’이라는 民族的理想을 굳게 잡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상에서 나는 우리 겨레의 역사를 통하여 겨레의 이상을 상고하였다. 애시부터 우리 배달 겨레는 멀고 먼 서쪽의 따로부터 밝음을 찾아 동쪽으로 옮겨 왔고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또한 밝은 누리의 실현으로써 그 이상을 삼았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 동안에는 때로는 검은 구름이 사납게 휘몰아 들어 그 밝은 달을 덮기도 하였지만 바람을 따라 이리 저리 물리는 구름은 본래 상주(常住)의 것이 아니매, 그것이 벗어지는 대로 변함 없는 밝은 달은 언제나 제 본연의 자태를 나타내기를 어김없이 하였다. 혹은 이점은 구름의 머무름의 너무 오래됨으로써 저 밝은 달의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하리라. 더구나 겨레의 이상이란 것은 그 겨레의 구성분자인 개개의 사람이 반드시 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분자로 말미암아 의식되고 인식될 따름이요 대대수의 사람들은 부지중에 은연히 그러한 공기 가운데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겨레스런 이상의 존재 및 전래는 원래 그 본질상 또렷하게 잡히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우리의 역사를 깊이 살펴서 거기에 겨레스런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확실히 붙잡았다(看取): “밝은 누리”(光明理世)의 실현이 곧 그것이다. (14)

라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외솔은 우리 祖上들이 본래 西域地方으로 부터 밝고 환한 좋은 곳인 韓半島로 옮겨왔다고 보고 있다는 것과 본래 民族的理想이라는 것은 지도자적 인물들에 의해서 뚜렷하게 인식되어 따라서 이와같은 것은 가르치므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前提가 엿보

(14) 최현배, 나라사랑의 길, 서울, 정음사 1958. pp. 193—194.

인다.

이 점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는 있으나 大同小異한 일이라고 하겠다.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는 나날이 생활하기에 바빠서 民族的理想이 무엇이나에 대하여 하루 종일 이것만을 전적으로 연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민족적 이상의 實體를 구명하고 이를 제시하는 일은 학자 등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즉 외솔이 말하는 ‘우수한 분자’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솔은 또 그와같은 民族的理想은 그가 오랜동안의 우리나라 歷史研究의 結論으로서 ‘밝은 누리의 실현’이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맺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족적 이상이 훌륭하건만 歷史進展上에 있어서는 마치달이 구름에 가리어 잘 들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듯이 가리어져 民族的理想이 없었던양 착각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민족적 이상에는 옛부터 ‘밝은 누리의 실현(光明理世)이라는 이상이 왔다는 것이다.

둘째는 人間觀이라고도 할 것인데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弘益人間)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해방후 우리나라 教育理念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討議, 制定해가는 가운데 마침내 ‘弘益人間의 理念’이라고 하여 민주적 인간의 한국적 표현으로서 채택된 민족적 이상이기도 하다.

외솔은 이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이라는 말이 매우 소중한 우리의 민족적 이상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기는 유달리 맑고 해달(日月)은 한없이 밝다. 맑은 정신으로 사물을 처리하며 밝은 빛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며 바른 길로써 사람을 인도하여 평화와 자유가 영원히 깃들고 행복과 번영이 한없이 불어 나게 하여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이 우리 배달 겨레의 생활이상(生活理想)이요, 나라 정신이었다. (15)

라고 말하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와같이 환하고 밝게 세상을 다스리어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弘益人間)”의 이상으로써 나라를 세우고 살림을 일삼아 가는 옛적 배달 겨레의 사회가 좋은 버릇과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어 있어 이웃 겨레들에게 높임과 기쁨을 받았다. 중국의 옛 기록에 배달 겨레의 풍속과 버릇을 말하여 가로되 법이 엄하여 도적이 없으며 남자는 용맹스럽고 여자는 정신(眞信)하여 음란하지 아니하며(後漢書) 예의가 있어 서로 사양하고 다투지 아니하며(山海經) 서로 기리어 서로 헐바리지(毀棄) 아니하며 남의 환난이 있음을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건지며(東方朔異經), 용맹스러이 활쏘기를 잘한다(禮記, 後漢書)하였다. 그리하여 저 오만하기 짝이 없는 한겨레(漢族)가 제스스로는 중화(中華=북판의 뜻)라 하고 그 둘레에 사는 겨레들은 미물 집으로 이름지어 남쪽은 벌레(南蠻) 북쪽은 개(北狄) 서쪽은 싸움패(西戎, 戎=戈甲 || 兵器→戰爭)라 하였음에 대하여 배달 겨레에게는 동쪽에 사는 큰 활가진 사람(東夷, 夷=大弓人)이라 하였으며(說文, 禮記) 그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군자의 나라(君子之國), 예의의 나라(禮儀之國)(山海經, 古今註 論語) 착한 사람의 나라(善人之國)(東方朔神異經)라 하였다. —이로써 살피건대 옛적의 우리 배달 겨레가 얼마나 환하게 나라를 다스리었으며 얼마나 맑

(15) 上揭誌, p. 185.

이 이웃 거레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6)

고 하였다. 引用文이 좀 길어진 감이 있으나 외솔의 이 說得力있는 文勢를 그대로 옮기는 것 이상의 길이 없다고 보아 여기에 그대로 실기로 하였다.

생각컨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이라는 弘益人間의 理念은 본래 우리 민족적 이상이고 그것은 政治理念이었다. 그것을 해방후 신생 민주국가의 教育理念으로서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념으로 정해진 ‘弘益人間의 理念’은 그 참뜻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채 심지어 教育理念 不在라는 소리만 높이 외쳐졌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겹쳐진 결과임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외솔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우리 민족적 이상인 ‘弘益人間의 理念’의 참뜻을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理解할줄 알아야 되겠다.

‘弘益人間의 理念’을 둘러싸고 그 동안 論議된 일들이라든가(17) 그 代案으로 제시되었던 십여개의 교육이념의 類型(18)에 대해서 새삼 言及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점차 ‘弘益人間의 理念’에 대하여 肯定的解釋이 나오고 있는 사실만은 지적해 두고 싶다.

이상 외솔이 지적한 우리의 民族的理想인 ‘환하고 밝게 다스리는 누리’(光明理世)라는 말과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弘益人間)이라는 말을 하나로 묶어볼때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외솔은 그것을 ‘나라사랑의 길’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옮겨볼때 그것은 ‘한’이라는 思想일 줄로 안다. 왜냐하면 ‘한’이란 ‘光明正大’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辭典의 풀이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한’이란 다음의 네 가지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

(1) ‘한길’이라고 하면 ‘큰 길’이니 ‘크다’는 뜻이요 ‘한울’(하늘=天)이니 ‘한밭’(大田)이라고 하는 경우 역시 ‘크다’(大)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2) ‘한빛’이라고 할 경우에는 한개의 빛이라기 보다는 ‘밝은 빛’(光明)을 뜻하는 것이요

(3) ‘한부처’(諸佛)라고 할 경우에는 ‘여럿’(諸) 또는 ‘많다’(多)는 것을 뜻하며

(4) ‘한낮’(正午)이라고 할 때에는 ‘바르다’(正)는 것을 뜻하며 ‘한결’(直線)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똑바로’(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한’이란 ‘크다’는 뜻을 비롯하여 ‘밝다’느니 ‘여럿’ 또는 ‘많다’ ‘충부하다’ ‘바르다’ ‘똑바로’(곧다, 直)등등 많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밝(光明)의 思想(19)에 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밝’의 思想 즉 ‘불’(밝안)에 대한 생각은

(16) 上擧誌, pp. 185—186.

(17) 韓基彥, 韓國教育의 理念, 서울 大學校出版部, 1968, pp. 189—219.

(18) 韓基彥, 教育의 歷史 哲學的基礎, 서울, 實學社, 1975, pp. 889—900.

(19) 崔南善, 故事通, p. 8.

光明의 근원을 숭배하는 太陽崇拜로 나타났으며 백두산과 같은 高山 神山을 숭배하는 ‘밝산’ 숭배로 원생지 고향터 阿斯達(聖母地)을 숭배하는 성모 숭배로 또 神明의 가호를 비는 바 靈神崇拜였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은 ‘밝’의 思想, 太陽崇拜思想은 우리 固有思想의 핵심이 었고 ‘淨潔’을 사랑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한’은 漢字로 표기할때 ‘韓’이나 ‘桓’을 비롯하여 ‘干’이니 ‘丸’ ‘解’ ‘駕’ ‘蓋’ ‘高’ ‘金’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두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²⁰⁾ 더우기 檀君의 姓이 ‘桓=한’이요 이것이 후에 ‘韓=한’이 되었으니 ‘한’이라는 말은 곧 民族과 民族의 姓이요 또한 ‘나라 한=韓’이라고 하듯이 古代에 있어서는 ‘三韓 諸國의 나라 이름이 되었으며 ‘大韓帝國’이라고 하고 또한 오늘날 다시금 ‘大韓民國’이라고 하여 ‘韓=한’으로 써 나라의 이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니 ‘한’의 思想에 대하여 우리는 한국인 형성의 核思想으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²¹⁾

어떻든 얘기는 다시 돌아가 외술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民族的 理想의 再闡明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환하고 밝게 다스리는 누리’(光明理世)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함’(弘益人間)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을 具現하는 일이 ‘나라사랑의 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民族的理想이 우리 나라 역사상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2. 民族的理想의 歷史的 展開

외술은 우리의 民族的 理想의 源流요 原型을 ‘옛 조선의 이상’에서 찾아 보고 있거니와⁽²²⁾ 민족적 이상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모두 네 시기로 기누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옛 조선 시대를 비롯하여, 삼국 시절, 고려 시대 및 한양 조선 시대가 그것이다.

‘밝게 다스리는 누리(光明理世)의 실현이란 理想을 설명함에 있어 赫居世의 이름표를 들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赫居世”는 우리 말이니, 혹 “弗矩內王”으로 지으며, 그 뜻인 즉 “환하고 밝게 다스리는 누리”(光明理世)이라 하였다.⁽²³⁾

고 하면서,

“赫居世”는 “봄의 누”로 읽을 것이니, “봄”은 광명이요, “누”는 “누리”와 한 말로서 “世”이다. 그래서 “봄의 누” 곧 광명(光明)이 다스리는 누리(世上)이란 뜻이다. 그런데 “봄”의 참뜻은 환한 빛(光明)으로 상징되는 “검(神)”을 이름이니, “봄의 누(赫居世)”는 곧 “검의 다스리는 누리” 곧 “神政期” 또는 “祭政期”를 이름이요, 개인의 이름은 아니며 그 임금으로 뽑힌 개인의 이름은 실상은 “及梁部”의 “발치”(海尺)란 아기이다. 다시 말하면, 발치 아기가 검이 다스리는 누리의 임금(居西干,

(20) 金敬琢, 韓國原始宗教史(二)——하느님 觀念發達史——, 「韓國文化史大系」(VI) pp. 121-122.

(21) 韓基彥, 韓國思想과 教育, 서울, 一潮閣, 1973, pp. 4-5.

(22) 최현배, 나라사랑의 길, pp. 184-186.

(23) 上揭書, p. 187.

居瑟耶)이 된 것이라 한다.⁽²⁴⁾

고 安在鴻의 說에 同調를 표시한 바 있다.

의술은 우리의 민족적 이상 伸張에 있어 비록 한양 조선은 건국초의 피비린내 나는 政權 爭奪로 인해서 가장 욕된 시기라고 보았다. 그 임금자리를 다투어 빚어낸 골육간의 참극 및 이에 따른 실상은 사람의 고귀한 심정을 심히 욕되게하는 추악한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이네들의 잡은 나라는 도저히 길이 뻗어나갈 소망이 있을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라고 斷罪하면서도 그럼에도 매히잡고 이씨의 임금자리가 5백년이 넘도록 지탱해 온 것은 그 原因이 따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나의 보는 바에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偉業)이 천고에 뛰어나아 겨레 살림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지대(地台)를 쌓은 덕어 소치라 하겠다”고 世宗大王이 남긴 한글 創製를 비롯한 문화사적 偉業에 대하여 극구 찬양하여 마지 않았던 것이다.

겨레 문화의 마로섬 대중 생활의 자유와 행복, 민주주의스런 정치의 실현——이것이 세종 대왕이 천명한 근세 조선의 나라 이상이였다. 세종 대왕은 다만 이러한 이상을 공론으로서만 하지 않고, 그 이상 실현의 기초 수단으로서 겨레의 글자 한글을 짓고, 펴고, 전하기에 갖은 마음과 힘을 다 쓰였다. 그 뿐 아니라 ‘한글 이외에도 정치, 경제, 병사, 과학, 예술 들 각 방면에 걸쳐,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썩지 않는 공적을 끼치었다.’⁽²⁵⁾

고 가장 빛 나는 우리 民族理想 實現의 歷史的瞬間을 世宗大王의 偉業을 들어 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술에 있어 世宗大王에 대한 欽慕의 情이 우리 한국인 모두에게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더욱 강했음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확실히 한글의 創製 하나만으로도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自主獨立心과 獨創性이 잘 나타나 있으니 가히 民族的理想 實現의 하나의 절정을 이룬 대목이라고 하겠다.

한국인의 마음씨인 光明理世와 弘益人間이라는 민족적 이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의술의 所說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거니와 앞으로는 더욱 더 여기에 관한 事例들을 實證의으로 제시함으로써 그의 본래 의도한 바를 더욱 더 밝게 드러내도록 해야 될 줄로 안다.

혹은 나의 소론을 허무하다고 하고, 거지 얽음이라 하리라. 이런 이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알맹이도 찾지 못하고, 그저 제스스로를 값없는 것으로 침으로써 만족하려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은 자포자기의 “버린 사람”이 아니면, 제 혼자만 잘 났다는 “진방진 사람”이라 하겠다.⁽²⁵⁾

고 하면서 온 인류의 역사도 또한 하나의 理想의 實現의 過程이라 할 수 있다는 그의 歷史觀을 비쳤다. 이리하여 그는 말하기를,

(24) 上揭書, p. 187.

(25) 上揭書, p. 194.

만약, 우리에게 거레스런 이상이란 것이 전혀 없었다 하자. 우리의 역사가 다만 자연 물리적 변화의 연속이거나 자연 동물적 본능의 연속이었다 하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의 역사란 일컬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 적어도 인간이란 歷史的動物이니 만큼 반드시 한 민족에 있어서도 그들 자신의 民族的 理想의 歷史的 展開가 행하여졌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못박아 놓았다. 여기에 우리는 외술의 교육사관을 특히 民族의理想實現이라는 것과의 관계에서 추후해 보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3. 民主主義：人間尊重思想의 教育的 傳統

외술의 歷史觀은 進歩의 原則을 믿는데 있었다. 그 까닭은 본래 사람이란 ‘이상스런 있음(理想的存在)’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역사는 반드시 어떤 이상의 실현 과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에서는 반드시 進歩가 있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물론 외술 역시 역상 진전에 있어서 퇴보나 어두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와 같은 퇴보나 어두움이라는 것은 도리어 이상의 진보를 더 잘 들어내려는 ‘惡의 存在’일 따름이요, 끝장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人類의 理想의 實現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외술은 힘주어 말하기를,

이제, 우리 배달 거레의 이상도 그 역사 위에서 나타남이 매우 미약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그 미약하였다는 탓으로써 그 있음조차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²⁷⁾

고 하였다. “미약하였다는 탓으로써 그 있음조차 부인하여서는 안된다”는 이 切切한 말을 우리는 몇번이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그간 日帝治下의 혹독한 同化政策과 한국 문화 말살로 인하여 우리의 民族的 理想이 어떻게 역사상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민족적 이상의 탁월함도 그 所以然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외술은 民族의理想의 顯現이 미약했다는 것과 不在는 同一한 것이 아니라고 엄밀하게 갈라 쓸 것을 말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외술은 우리의 民族的理想이란 ‘맑은 누리의 실현’이요 그것은 민주주의 근본정신의 완전한 실현과 동일한 것이라고 맺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서 단적으로 대답하노니 : 한때 나라를 도로찾은 배달 거레의 이상은 모름지기 민주주의 근본정신의 완전한 실현에 있다고⁽²⁸⁾

(26) 上揭書, p. 194.

(27) 上揭書, p. 195.

(28) 上揭書, p. 195.

라고 하면서,

첫째, 사람이 가장 귀하고 높다.

둘째, 사람은 다 평등하다.

셋째, 사람은 다 형제이다.

라는 세가지 理念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곧,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요, 이 정신의 실현이 곧 우리 겨레의 역사스런 이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이상이 실현된 누리(世上)는 곧 사람이 가장 尊重되며, 만 사람이 다 生命과 自由와 幸福追求의 平等의 權利를 누리고, 온갖 사람들이 兄弟같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 가는 것이니, 이런 누리가 곧 ‘환하게 다스리는 누리’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는 民主社會요, 이와 같은 “환함(光明)이 지배하는 누리에는 불안과 공포가 없으며, 어둠(暗黑)과 가난(貧)이 없으며, 거짓과 불의(不義)가 없고 있는 것은 다만 자유와 행복이요, 옳음과 참됨일 것이다. 미움은 그 꼬리를 감추고, 오직 사랑이 그 가슴을 열것”이라고 말하였다.

확실히 한국인의 마음씨는 훈훈한 人情味에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弘益人間이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고 근래에 와서 民主主義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외술은 분명 이런 의미에서 民族의理想인 ‘光明理世와 弘益人間’은 民主主義와 同義語라고 결론지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人間尊重思想의 교육적 전통⁽²⁹⁾을 특히 힘주어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IV. 韓國教育精神의 構成要素와 思想的基調

1. 아홉 가지 德

외술의 教育史觀은 그가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의 民族의理想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 되어 왔는가를 實證의으로 고찰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우리나라와 아울러 東西洋의 興亡盛衰史를 살펴 본 결과 그 原因을 一般化하는데까지 이른다. 이리하여 그는 未來志向의인 의미에 있어서의 우리 민족이 노력해야 할 아홉 가지 德의 배양을 강조하는데까지 이른다. 이렇듯 외술의 教育史觀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한줄기 教育救國의 念願으로 꿰뚫고 있다는데 있어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재래의 實證史學의 학문적 경향에서는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論及치않는데 외술의 경우는 이와같은 史學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방법에는 구애되지 않았다. 史學研究의 正統的인 手法이상으로 그의 최대 관심사는 先人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國脈이 금일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歷史를 어떻게 하면 教育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빛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외술은 정신적 활력을 道德教育振興을 통해서 얻게 하려고 하였

(29) 韓基彥, 韓國教育思想史研究—韓國教育의 民主化過程에 관한 教育思想史的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69. 參照

으며, 또한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도 결코 등한히 여기지 않았기에 實業教育의 중요성을 극구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의술의 教育史觀에 대한 근본적 이해아래, 이제 우리는 한국의 民族的理想의 教育史의 理解와 아울러, 未來志向의인 의미에 있어서의 韓國教育精神의 構成要素는 무엇이며 思想的基調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 보아야겠다.

의술은 韓國教育精神의 構成要素로서 다음의 아홉가지 德을 제시하였다. 이제 하나 하나 그 大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 제시된 아홉가지는 의술이 우리나라와 동서양의 역사적 사실을 분석한 결과 얻은 하나의 歷史的 敎訓이요, 따라서 장차 우리가 힘써야 될 점을 아울러 생각한 끝에 제시한 德目이기도 한 것이다.

첫째는 國民的生氣이다.

의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 이 ‘국민적 생기’와 ‘공공정신’(도덕심의 굳건함)이다. 전자는 신체적 조건이요 후자는 정신적 조건이니 心身양면의 우월성을 희구한 생각이라고 하겠다.

그는 나라 盛興의 法則을 말함에 있어 첫째로 ‘국민의 생기가 왕성한 나라는 흥성한다’고 하였다. 즉, 심신이 건강하며, 기풍이 질박강건하며, 생존의 욕이 발발하며, 生活力이 힘차며 增殖率이 왕성함이 곧 생기의 왕성한 증상이니, 이러한 국민으로 이뤄진 나라는 반드시 흥성한다⁽³⁰⁾고 하였다.

따라서 의술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人口의 증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었다. 의술은 「三國遺事」에 의거하여 고구려 전성기 7세기에 평양이 21만 5백 8호, 백제는 같은 전성기에 부여가 15만 2천 2백호, 9세기의 신라 경주가 17만 8천 9백 3십 6호임을 밝히고, 한 戶에 4~5인으로 셈잡으면, 당시 평양 인구가 약백만, 부여가 약 70만, 경주가 약 80만이라고 推算하였다. 그는 또 孫晉泰의 「國史大要」에 의지하여 舊韓國末에 이르기까지의 人口增加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리하여 의술이 특히 깊은 관심을 나타낸 시기는 日帝治下에 있어서 우리 人口의 增加現象이었다.

우리 겨레의 인구 수가 이미 3千萬을 넘었다. 이를 1910년 한일합병 당시의 조선인구 1천 3백만에 비하면, 실로 2배 반의 증가이다. 일제 삼십륙년 동안의 극악한 암박과 혹독한 착취 밑에서도 줄곧 증가의 외길을 보여 왔고, 참혹한 6·25동란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의 인구 손실이 막대하였음에도 매히 않고, 오히려 이같은 증가를 가져왔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이 얼마나 유망한 현상인가? 이와 같은, 세차고 질긴 생물학적 힘——그것은 인간 만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을 가진 우리 배달 겨레의 장래는 환하고 푸진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라 단언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³¹⁾

(30) 최현배, 나라사랑의 길, p. 295.

(31) 上揭書, p. 227.

라고 말하였다. 이 말 가운데 그가 얼마나 우리 민족의 생명력의 왕성함에 대하여 대견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스라엘民族이 나치스政權下에 大虐殺을 당하였건만 세계 도처에 흩어져 번식하고 있었을 뿐더러 우수한 頭腦와 財力으로써 세계를 움직여 왔기에, 세계 2차 대전후 2천여년만에 잃었던 나라를 옛고장에 再建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중국대륙에 8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中國人 역시 세계 각지에 중국인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거나 중국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들의 번식력의 왕성함과 아울러 우리에게 人口問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플라톤 역시 우수한 素質과 頭腦의 소유자는 그 子孫이 많아져야 된다고 優生學的인 견지에서 人口問題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와같은 점을 아울러 생각해 볼 때, 외솔이 우리 민족의 人口增加現象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포시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人口教育을 단순히 産兒制限으로만 강조하는 일부 전문가들에게 하나의 민족적 견지에서의 警告가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軍事的優秀性이다.

이하 項目을 열거해 보면,

세째, 創造力(문화의욕이 왕성한 국민), 네째, 組織力, 政治力이요, 다섯째, 일치 단결력, 여섯째, 부지런한 國民(경제관념), 일곱째, 검질긴 성질(強韌한 국민성), 여덟째, 유리한 땅의 점유, 즉 地利요, 끝으로 아홉째, 도덕심의 굳건함(공공정신)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教育的價値面에서 다시 정리해 볼 때, 네가지 價値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生活’價値에 속하는 것은,

- 국민의 生氣
- 군사적 우수성(武力)
- 유리한 땅의 점유(地利)이요,

‘知性’價値에 속하는 것은,

- 창조력(創造力)이다,

‘協同’價値에 속하는 것은,

- 조직력 정치력(政治力)
- 일치 단결력(團結)
- 부지런한 국민(勤勉性)이요,

‘人格’價値에 속하는 것은,

- 도덕심의 굳건함(道德心)이다.

이리하여 모두 ‘아홉 가지 德’이 되어 九德이 되는데, 그가 이에 관한 글을 쓰던 곳이 공교롭게도 釜山피난 당시 九德山下에서였으니 이 ‘아홉가지 德’을 강조하는 외솔에 있어

서도 九德이라는 말은 감회가 깊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외솔이 민족번영의 諸德性 가운데서도 특히 강조한 것이 身體的條件인 왕성한 生命力과 아울러 精神的條件인 道德心이었다. 이제 그가 얼마나 도덕심이 굳건하고 公共精神이 선 국민이 될 것을 바랬던가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내가 여기 도덕심으로써 나라 흥성의 최후의 덕으로 세운 것은, 결코 그 뜻이 도덕심이 나랏집 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 함에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장 큰을 득하는 것이다.⁽³²⁾

이렇게 道德心涵養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교육적 관심의 序列上的 참뜻을 밝히고 나서, “나는 앞에서 나라 흥성의 첫째 조건으로서, 그 국민의 생기의 왕성함을 들었고, 이에 맨 끝의 조건으로서, 국민의 도덕심의 굳건함을 드노니 : 이는 생기와 도덕 두 가지가 나라 흥성의 원동력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외솔이 생각한 바로는, 生氣와 道德心은 나라 흥성의 원동력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生氣와 道德은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기의 왕성한자는 반드시 그 도덕심도 왕성하며 도덕심이 왕성한은 곧 그 생기의 왕성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생기와 도덕은 나라 흥성의 모든 원동력을 대신할 만한 가장 깊고 큰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일찍이 「朝鮮民族更生의 道」에서 강조한 바,

- 생기를 이르키라 (生氣振作)
- 이상을 세우라 (理想樹立)
- 갱생을 확신하라 (更生確信)
- 끊임없이 노력하라 (不斷努力)

이라는 네가지 標語는 지금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信念임을 想起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의 信條告白은 다음과 같은 말로 自己表明을 하고 있다.

나의 믿는 바로는, 한 겨레 한 나라의 흥성의 근본 동력은 그 사람들의 生氣이다. 사람의 생기의 발현은 두 길이 있나니 : 그것이 몸덩이(身體)에 나타나서는 세찬 체력과 민첩하고 부지런한 활동이 되며, 마음에 나타나서는 굳센 의지와 흐뭇한 감정과 날카로운 슬기가 되고, 마음과 사랑과 진리를 가지게 되어, 여기에도 모든 아름다운 도덕심이 성립하는 것이다.⁽³³⁾

라고 말하였다. 이와같은 근본취지를 가지고 九德山아래에서 나라 흥성의 덕을 찾아낸 것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 生氣, 武力, 創造力, 政治力, 團結, ‘부지런’(勤勉性), ‘검질김’(強韌性), ‘유리한 땅’(地利), 道德心이라는 아홉가지 德이었다. 이것을 나는 외솔이 생각한 바 韓國教育精神의 構成要素인 아홉 가지 德으로 파악하였다.

(32) 上揭書, p. 312.

(33) 上揭書, pp. 312—313.

그러면 그가 追求한 바 韓國教育精神의 思想的基調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을 나는 다음 節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2. 「참」의 原理

외솔이 가장 배격한 것은 ‘거짓과 우악(暴力)’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간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惹起되었던 수많은 非違事實, 社會的不條理, 즉 社會的 病理現象에 대하여 저술하였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道德的으로 復活할 길이 무엇인가를 외솔은 제시하였으니 모두 여섯 가지 項目이었다.

첫째, 眞實과 順理의 生活

죽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島山 安昌浩가 가르친 말이 유명하거니와 외솔 역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우악을 부리지 말라고하여 진실과 순리의 생활을 할 것을 勸告하였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만 하기로 하자. 거짓과 속임이 모두 죄악의 시초이며 뿌리이니 ‘이를 없이하는 것이 곧 그 社會를 살기좋은 아름답고 미쁜(신의 있는) 사회로 만든다. 꿩꿩이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공명정대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거짓말 하는 것은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제스스로, 제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요 우악을 부리는 것은 남을 쳐부수기 전에 먼저 제가 타고난 良知 곧 道理의 마음을 부수는 것이라고 본외솔은, 거짓과 우악이 추구하는 바가 利己心이겠으나 종당에는 거짓과 우악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喝破하였다.

이기심은 제를 유익하게 하려다가, 도리어, 제를 잃어버리고, 다만, 먼저, 물질의 종이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 다른 겨레, 다른 국민의 종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다.⁽³⁴⁾

그래서 제스스로의 良心과 良知를 깨트리고서, 진정하게 제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제스스로의 양심과 양지를 부수고 난 제에게 이익이 돌아온들 그것의 소유자로서 능히 그것이 주인노릇을 할 이가 누구 있을까?”고 되물었던 것이다. ‘참’의 原理에 익간한 생활의 추구야말로 韓國教育精神의 思想的基調가 되어야 할 것임을 생각해 한다.

이리하여 외솔은,

둘째, 獨立自尊의 生活

셋째, 부지런하고 儉朴한 生活

네째, 사랑과 섬김의 生活

다섯째, 和合 合同의 精神을 發揮하자

여섯째, 겨레정신을 살리자

교 모두 여섯 가지 道德教育의 基本綱領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34) 上揭書, p.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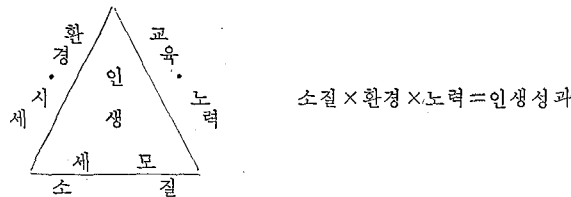
이 모든 것에 흐르는 하나의 思想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참된 삶이야말로 소중하다는 것이요,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외솔이 구구 배격 타기한 것이 거짓과 우악이었다. 그는 거짓에 관한 것만 하여도 수 많은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³⁵⁾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가 단한 마디로 ‘참’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역시 그가 한국 교정신의 思想的基調를 나타내는 말을 表記했다고 하면 그는 ‘참’이라는 말을 썼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거짓을 이 땅에서 一掃해야만 되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V. 외솔의 教育史觀

이제 우리는 結言을 곁하여 외솔이 생각한 바 「외솔의 教育史觀」에 대하여 整理해 보기로 하겠다.

외솔은 韓國人의 素質이 우수함을 實證하려고 하였고 민족적 자부심을 보였다.

“사랑의 역사는 세 가지의 요소에 따라 결정되나니 : 유전하는 소질, 자연적 및 사회적 환경, 교육 및 생존 노력이 그것이다.”⁽³⁶⁾라고 하여, 외솔은 歷史形成의 세가지 要素가 무엇인가를 밝혔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다음과 같은 模型과 公式을 제시하였는데⁽³⁷⁾ 이것은 말을 달리하면 教育의 三要素 내지 人間形成의 關係式을 보인 것이라고도 하겠다.



이 ‘인생세모’에 대하여 외솔은 설명하기를 사람은 제스스로의 의사와는 무관계하게 운명적으로 어떤 素質을 가지고 어떠한 環境속에 태어난다. 그리하여 ‘인생 세모’의 두쪽은 이미 주어진 것이요, 다만 努力한 쪽만이 제 스스로의 하기에 매인 것이다. 이 努力이란 한쪽을 가지고, 먼저 제 소질의 기르기와 개선하기를 힘쓰고, 다음에 환경을 정리하고 바로 잡고 이기고 개조하기를 힘쓴다. 그러므로 素質과 環境의 두쪽이 좋은 사람은 그 努力에 따라 착착 그 成果를 거둘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한한 노력에 대하여도 불만한 응보를 얻지 못하나니 : 앞의 것은 幸運의 사람이요, 뒤의 것은 悲劇의 主人이 되는 것이 예사이다. 아름다운 소질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써, 좋지 못한 환경, 이롭지

(35) 上揭書, pp. 332-372. (이상은 ‘거짓’에 관한 具體例 叙述部分임) pp. 372-381. (‘우악’에 관한 部分) pp. 381-401. (거짓과 우악과의 害毒)

(36) 上揭書, p. 221.

(37) 上揭書, p. 222.

못한 時勢를 극복하여 제 理想을 실현하여, 사람 사회에 착함과 옳음과 참됨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자유를 지어내는 이는 곧 聖賢이요, 君子이요, 義人이요, 英雄이요, 眞人이요, 師表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외솔은 말하기를, “사람은, 첫째, 그 타고난 소질로써 그 존재가 결정되고 다음에 그 환경으로써, 그 행동이 제약되나니 : 그 창조 발전의 능동적 요소는 오직 노력뿐이다”라고 創造發展의 能動的要素인 ‘努力’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여기에 있어 외솔의 관심은 韓國人의 素質問題로 돌려지는데, 그는 素質을 몸의 소질과 영의 소질과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있다.

첫째 韓國人의 身體的素質에 관해서이다.

외솔은 우리 민족이 個體的 및 種族의 生活力에 있어 뛰어난데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나라 사람은 “몸집이 장대하고 세고 날나다”⁽³⁸⁾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 겨레의 齒牙와 씹는 근육이 다른 겨레들에 비하여 매우 튼튼함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齒牙가 튼튼한 점이 건강한 體力의 象徴이 됨에 착안하여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首肯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외솔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겨레의 앞길에 큰 소망을 주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맺고 있다.

둘째는 精神的素質인 韓國人의 ‘얼’에 관해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외솔은 다음의 몇가지를 指摘하였다.

- 겨레의 이상 : 밝은 누리의 실현
- 지력의 우수함(創造的知性) : 총명함 영특함
- 의지력의 검질김
- 여자 농구선수단이 보여준 협동심
- 감성의 빼어남 : 예술적 소질의 빼어남

을 들었다. 이리하여 외솔은 ‘밝은 누리의 실현’을 통해서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그의 教育史觀을 한국인의 素質面에서 그 基礎를 다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외솔이 큰 관심을 보인 우리 女子籠球選手團에 대한 精神的素質面에 관한 論評을 보던 대개 다음과 같은 要旨의 말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 여자 선수단이 보여준 ‘집질김 투쟁 정신’에 대하여 그들이 실증한 바 ‘協同精神’과 아울러 극구 찬양하고 있다.

외솔은 1956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1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아시아 자유 국가 친선 여자 농구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대표, 숙명여자 고등학교 선수단의 名單 및 그들이 가졌던 전후 열 번에 걸친 對戰戰 結表를 상세히 소개한 후, 現地 日刊有力紙에

(38) 上揭書, p. 224.

나온 論評⁽³⁹⁾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나는 다만 외국인의 평으로써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견해와 평가를 주목적으로 빌려들고자 한다”고 하면서, 모두 여섯 가지로 나누어 激讚하였다.

첫째, 우리 농구단이 열 번 싸워 열번을 다 이긴 그 빛난 전적을 거둔 것은 확실히 그 강함을 나타낸 것이라 믿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기뻐한다.

둘째, 이러한 전적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서, 그 분리한 조건을 극복하고서, 그렇듯 훌륭한 실력을 배양해 얻은 그 노력을 높이 값친다.

셋째, 우리 선수들의 체격이 좋음을 자랑하고 싶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체격이 동양에 있어서 대체로 좋은 편이다. 그 중에도 여자의 체력은 일본의 여자에 비하여 키가 크며 중국의 여자에 비하면 가슴과 다리가 발달되었다.

네째, 앞에는 열 판의 전적을 살피건대, 첫번 서막 전에서는, 성적의 차가 크지 못하여 그때의 비평가로 하여금 한국 단의 실력이 풍문보다는 의심스럽다고 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아가씨들은 차근차근 그 실력을 발휘하여, 판수가 거듭해 감을 따라 그 전적을 더욱 높게 나타내었다. —우리는 이러한 검질긴 투쟁 정신을 극구 칭찬하고 싶다.

다섯째, 이 농구단의 승리의 원인은 다만 그 체력의 강함 그 연마된 기술의 훌륭함 그 노력의 싸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겸양과 협동의 정신이 발휘된 소치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후, 외술은 이들 선수단이 모두 나이 어린 처녀들임을 특히소 리치고 싶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튼튼한 체력과 그러한 협동 정신과 그러한 노력과 즐기차게 싸워가는 투지를 가진 우리 아가씨는 참 미덥다”⁽⁴⁰⁾고 하였는데, 그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知力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예를 들어 實證하였던 것이다.

우리 겨래의 ‘얼의 소질’의 非凡함에 대해서 빛난 理想 무진 문화(文化財), 즐기찬 歷史라는 세 가지로써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 모두가 ‘외술이 한 없이 미덥게 여겼던 우리 韓國人 素質의 優秀性에 대한 외술 자신의 自負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외술은 일제기, 「나라진지는 교육」(救國的教育)을 통해서, 生産技術人, 和合協同人, 奉仕恭敬人을 키우는 일이 艱요함을 말하면서, 道德教育에 힘써야 될 것으로 要約하기도 하

(39) 上揭書, p. 232.

華僑商報의 評:

한국 단의 특징은 가장 나이가 젊고 가장 다리가 튼튼하고 가장 동작이 재빠르고 그 판리가 가장 엄하고 그 예모(禮貌)가 가장 빼어나다.

한국 농구단이 구장에서 충분히 그 고난하게 성장한 민족 기백과 소박 결허한 성격과 작고 건인의 정신을 나타내어 이곳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가 마닐라에서 온 뒤로 그 능능한 위력과 신속한 전하기(傳遞)와 그 정확한 쏘기(投射)는 그 연전 연승의 빛난 전적을 이뤘내었다.

(40) 上揭書, p. 234.

였던 것이다.⁽⁴¹⁾

이와같은 외술의 教育思想에 비추어 볼 때 그의 教育史觀이란 무엇이겠는가? 나는 외술이 生涯를 통하여 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사랑이요 '教育救國의 念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외술의 史觀을 특징지운다면 그것은 '教育史觀'이라고 해야 하겠는데, 여태까지의 史觀의 변천 및 人間形成史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의 史觀은 '教育史觀'이어야 한다는 論旨의 말을 해보았다. 이리하여 외술의 修學過程으로 보거나 그의 生涯를 통한 教育활동을 보거나 그는 오직 '教育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써 살아 온 우리 나라 教育學의 先驅者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외술의 所說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마칩내 그의 '民族的 理想의 教育史의 理解'는 어떠하며 '韓國教育精神의 構成要素와 思想的基調'는 무엇인지 밝혀보도록 하였던 것이다.

실로 '외술의 教育史觀'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참된 教育이 나라를 救해 낸다는 信仰告白'이라고 나는 본다.

(師範大學 教育學科)

(41) 최현배, 나라건지는 교육, 서울, 正音社, 1975, pp. 7-101.